

재외동포의

창

2012 4월호

KOREAN NET

KOREAN NET 인기검색어: 재계인사소문... 경매공 제1회포서간

주요뉴스
 장학가 조수배, 파리서 귀중한 환표 행사
 생애가 조수배, 파리서 귀중한 환표 행사 (특히-전정호) 김희영 <세계적인 명사> 조수배가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411 출신 재외국민 장학금 통해 귀중한 환표 행사를 실시했다. 중립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 홍보대사인 조수배는 이날 교민들에게 사간...

POPUP ZONE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안내
 *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안내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안내)
 * 2012.11(수)~12(금)
 * 2012.11(수)~12(금) 예정
 * 2012.8-2013.2

즐거워하는 서비스
 K-POP, 동문인사단체, 정치인명단, 한국관, 카로날, KAT 뉴스센터

공지사항
 2012 세계간담회... 2012.03.27
 2012 세계간담회... 2012.03.27
 2012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안내... 2012.03.14
 2012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선발안내... 2012.03.13

KOREAN 전자도서관
 KOREAN 전자도서관
 KOREAN 전자도서관
 KOREAN 전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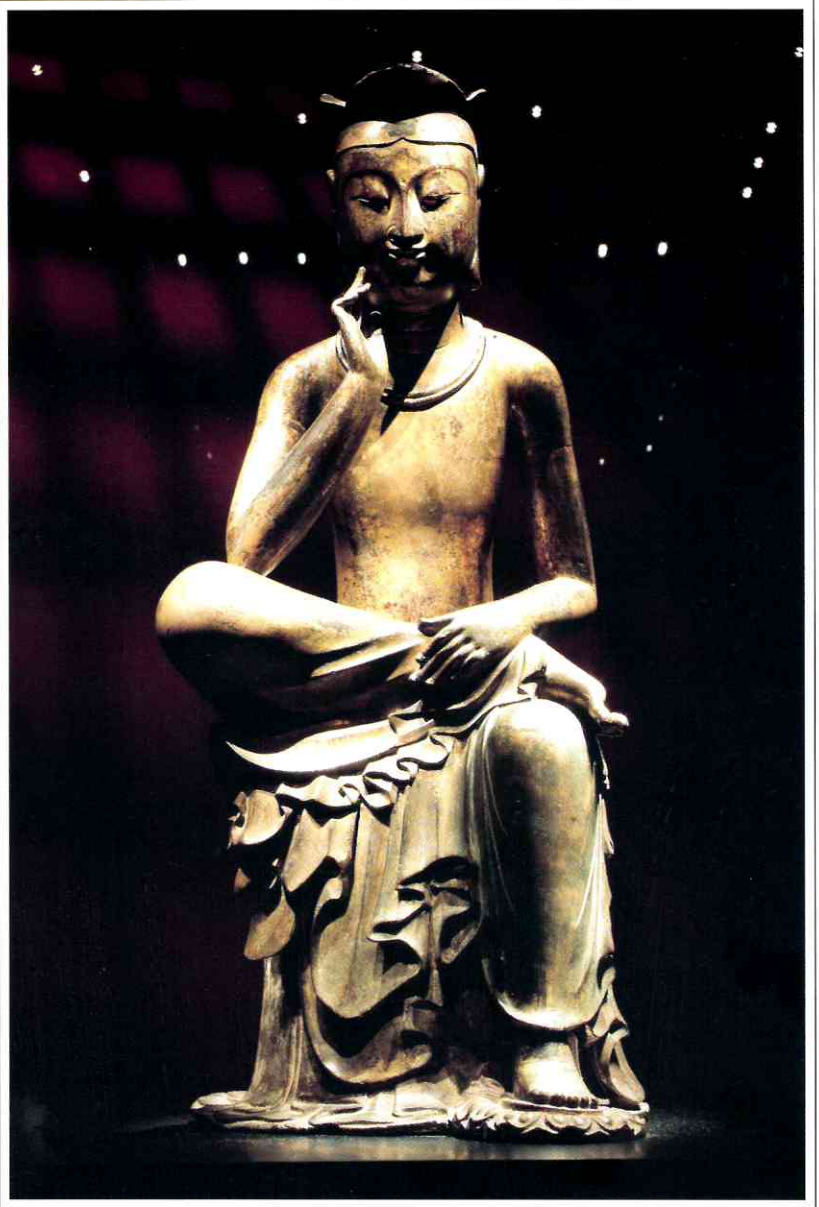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HANSANG
 Creating Value through Partnerships
 세계한상생리가 함께 합니다.

한상생리
 한상생리
 한상생리
 한상생리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우리의 얼굴, 우리의 미소...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우리나라 고대 불교조각사 연구의 출발점이자 6, 7세기 동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불교조각품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반가사유상은 왼쪽 다리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린 이른바 반가(半跏)한 자세에 오른 뺨에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대어 마치 사유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불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여 명상에 잠긴 싯다르타 태자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도의 간다라나 중국 남북조 시대의 불전(佛傳) 부조 중에서 종종 등장한다.

크기가 93.5cm로 금동으로 만든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최상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단순하지만 균형 잡힌 신체,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처리된 옷 주름, 분명하게 표현된 이목구비, 정교하고 완벽한 주조기술, 여기에 더해 얼굴의 잔잔한 미소는 종교의 예배 대상이 주는 숭고미를 더해준다.





04



08



14



16



18



24

Contents 2012 4월호

02	한국의 얼	금동미륵반가사유상
03	목차	
04	특집	전세계 한인이 하나되어 만난다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www.korean.net 구축 눈앞에
08	포커스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중요합니다" 동포재단 2012년도 1차 임직원 워크숍 개최
10	한상칼럼	한상대회를 비즈니스 '축제의 장'으로 문대동 제1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미국 삼문(Sammoon)그룹 회장
11	글로벌코리아	"세계제일 서비스로 규제와 싸워 이겼죠" 유태식 MK택시 부회장
12	지구촌 통신원	아들의 용돈
13	동포소식	재중국한국인회 '2012년 임원회의 및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외
14	현장의 목소리	고려인 동포들과의 '일상적인 교감'이 필요 김상욱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
16	한민족 공감	사상 최대 외교 이벤트 '핵안보 정상회의' 안보분야 국제 영향력 확대... 北로켓 저지연대 구축
18	OKF 뉴스 광장	2012 유럽한글학교 교사세미나 "우리말 가르치는 자부심 커요" 외
20	동포 문학	기억 김현지 제 13회 재외동포문학상 중고등부분 최우수상(중국)
22	화제	모국 찾는 차세대 동포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 재외동포재단 1기 대학생 자원봉사단(OKF)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24	나의 살던 고향	진해 균형제 - 꽃비에 가슴까지 젖는다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이미지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www.korean.net 구축



발행인 : 김경근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헤럴드미디어

전세계 한인이 하나되어 만난다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www.korean.net 구축 눈앞에



재외동포가 모국과 하나 되는 창구인 720만 재외동포 포털 '코리안넷(www.korean.net)' 이 확 바뀐다. 재외동포재단이 심혈을 기울여 코리안넷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하여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재외동포재단이 개편에 나서는 취지는 해외 거주 720만 명 동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다. 재외동포가 날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민족 자산'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72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크화

2008년 8월 '재외국민 보호 및 네트워크'가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그리고 세부 실천과제로 72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화가 선정됐다. 정부가 재외동포 챙기기에 본격 나선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재외동포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강화' '온라인 한민족 공동체 형성' '재외동포 경제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국정과제 채택 다음해인 2009년 3월에 사업은 더 힘을 받게 된다.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에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명칭으로 10대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하게 된 것이다. 어

느 사업보다 우리 재외동포를 끌어안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2009년 사업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해 종합적으로 정보화 전략(ISP)을 수립했다. 바로 정보화 사업간 연관관계와 구축범위를 고려해 기반 구축, 확대 구축, 안정화 및 완성 등 3단계 마스터플랜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드디어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1차 사업에 착수했다.

재외동포재단은 720만 명 재외동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상호 교류하는 온라인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코리안넷' 개편 및 보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재외동포를 온라인에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재외



동포 규모 확대 및 역량 증대에 따라 재외동포와 모국간 상시 통합이 가능한 정보기반을 구현하고 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720만 명 재외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합치고 또한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창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용자인 재외동포를 적극 고려해 줄 것도 주문했다. 수요자 중심의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단일창구 통합 접점'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재외동포재단은 이 같은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코리아넷 사이트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구축해본 경험과 불특정 다수 재외동포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은 것이다.

3개 부문별 사업 추진

사업은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 '재외동포 통합 인물·단체 DB 구축·운영 사업' 그리고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사업'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사업은 코리아넷의 고도화 그리고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리아넷 고도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했다. 또 다국어 서비스 등 재외동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수요자가 찾도록 해, 코리아넷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는 지역·분야별 네트워크 구축과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으로 나눠 진행됐다.

재외동포 통합 인물·단체 DB 구축·운영 사업은 2010년 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 인물과 단체정보

DB화 그리고 재외동포 실명확인 및 발급서비스 추진으로 구성됐다.

사이버 한상네트워크는 사이버 한상넷 구축과 세계한상정보센터가 핵심이다. 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상네트워크를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것. 특히 오프라인 참여가 힘들었던 재외동포를 함께 참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오프라인보다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사이버 한상네트워크가 연중 상시 비즈니스 정보 제공 및 교류 지원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들이 언제나 사이버 한상넷에 들어와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반구축에서 고도화까지

글로벌 코리아넷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했다. 2009년 1단계는 기반 구축기다.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인물과 단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이버한상네트워크 웹사이트를 만들고, 한상정보센터를 설립했다. 코리아넷 서비스 개편과 다국어 서비스도 개발했다.

지난해 실시한 2단계는 확대 구축기였다. 통합네트워크를 확대해 만들고 내외부시스템 연계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도입했다. 재외동포 인물과 단체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와 연계방안도 설계했다.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실명확인인인증서비스 방안도 검토했다. 재외동포가 아닌 사람이 재외동포 행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뢰 속에 재외동포가 믿고 정보를 얻고 교류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3단계는 고도화기다.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분야별 전문 네트워크 연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 인물과 단체 데이터베이스에 유관기관, 동포단체와의 연계에 나선다. 또 서비스 고도화 및 안정화도 추진한



다. 시스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파악해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통합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국가망 연계 및 서비스 안정화 그리고 재외동포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등을 정했다.

코리아넷 서비스 · 품질 모두 향상

코리아넷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사이버 한상, 스티디코리아 등 패밀리사이트에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규 콘텐츠로 카툰 코너를 연재했고, 5개 언어권별 동포단체 콘텐츠도 담았다.

주요 언론사 동포뉴스도 제공했다. 재외동포들이 즐겨 찾는 정보를 모두 담음으로써 자주 사이트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설한 것도 반응이 좋았다. 주요이슈와 기사제공으로 코리아넷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도 담았다. 젊은 층에 관심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K-POP뮤직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K-POP을 이끄는 가수와 그룹 멤버들 인터뷰와 다큐멘터리를 담았다. 재외동포들의 유입경로도 넓혔다.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전개했고 동포단체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배너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밖에 무정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날마다 사이트를 찾는 재외동포들이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휴일 · 공휴일 원격접속으로 최신 콘텐츠를 게시하고 혹여나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파악했다. 지난해 재외동포재단은 휴일 일부 시스템 장애를 두 차례 확인했고, 이에 대해 조기에 비상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노력은 바로 실적으로 나타났다. 2단계 사업 결과물이 속속 반영되는 지난해 7월 이후 이용자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코리아넷

방문자수는 7월 8만7483명에서, 8월(9만3913명) 9월(9만9229명) 10월(11만9800명) 11월(13만3856명) 12월(13만4599명) 등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도 1월 14만1312명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 2월 19만4650명으로 대폭 상승했다. 2단계 사업 종료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코리아넷 SNS 참여자도 초창기인 8~10월에는 400~500명대에 불과했지만 11월 4427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 2월에는 그 수가 7549명에 달했다.

한상을 위한 '사이버한상', 커뮤니티를 위한 '스티디코리아'

사이버한상은 한상들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했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동향 파악을 위한 분야별 신규 연구 자료를 넣고, 주요 언론사 한상 기사도 담았다. 세계한상대회 정보는 물론 검색기능을 넣어 연차별 한상대회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성공노하우 · 온라인세미나 · 사이버전시관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성공노하우 코너에는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고, 사용자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한 보기 기능도 있다. 검색기능도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세미나 코너는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 콘텐츠를 탑재했고 다중파일 첨부 기능 등 고급 사용자를 배려했다. 사이버전시관도 사이트를 통해 회사와 제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한상들의 고민을 대폭 반영했다. 제품이미지 등록기능 확대, 파일첨부기능, 관리자 추천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스티디코리아도 커뮤니티 활성화와 다양한 자료를 담아서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튜터제를 도입, 학습 과제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생·교사 토론방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 것도 특징이다. 뉴스레터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했다.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를 담았으며, 디자인을 대폭 단순화했다. 아울러 재외 한글학교 행사 및 기사 제공, 수업관련 학회 논문과 교제·연수자료 제공,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문제 및 일정을 제공한다. 이밖에 동요서비스 콘텐츠에 악보를 담았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제공하는 한편 청각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기능 및 키보드 학습 기능을 추가했다.

완벽한 고도화에 집중

재외동포재단은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 코리아넷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계획을 세웠다.

우선 코리아넷 및 패밀리사이트 고도화 및 운영 강화다. 1·2차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용자 불만사항 등을 개선한다. 코리아넷 서비스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온라인 포털개념의 서비스를 늘리고 다양한 홍보 방안과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정보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한다. 재외동포 전문 SNS 구축,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한 IT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나선다. 주요 국가별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네트워크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 인물·단체 DB서비스 추가 고도화, 유관기관 연계 구축 등이 있다.

IT인프라도 보안을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외부 공격을 막기 위한 보안관제도 시행한다. 또, IT인프라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패키지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에 나선다. **장**

프로젝트 매니저 인터뷰

장흥종 GKN팀장



“재외동포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모든 행정과 기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포털로 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장흥종 재외동포재단 글로벌코리아네트워크(GKN)팀장은 이번 3개년 프로젝트 지향점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이주 정보, 생활편의, 법률 등 사소하지만 재외동포에 필요한 서비스와 중요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정보를 담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단은 GKN팀을 만들었다.

“GKN팀 총괄로 세계한상센터, 교육사업팀, 개발사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품질관리와 지원조직을 각 운영부문·응용부문·통합기반팀으로 구성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 팀장은 “각 조직이 지속적인 회의로 발생하는 이슈와 진행사항 그리고 공정률을 체크한 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또는 민간에서 유사한 사업을 기획하고자 할 경우 충분한 사전 준비 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지, 수요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조사하라는 주문이다.

장 팀장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고민을 하지 않고 기획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떻게 만드신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배 전자신문 기자 joon@etnews.com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중요합니다”

동포재단 2012년도 1차 임직원 워크숍 개최

재단은 3월 23일부터 24일 양일 간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현안과 향후계획에 대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 현안과 2012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날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2012년도 재외동포정책 및 각 부처 유관사업 현황, 한글학교를 비롯한 차세대 교육사업,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재단의 대외협력 현황과 재외동포사업 국내홍보, 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 구축사업 현황과 활성화, 차세대 네트워크 현황 등 재단사업 전반에 걸쳐 분야별 토론이 이어졌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정책 필요

재외동포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다방면에서 재외동포의 위상이 높아지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는 만큼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재단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재외동포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제고와 차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글교육은 물론 민족의 역사·문화 습득을 통한 정체성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한글학교 지원과 교사연수가 폭넓고 다양하게 확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 1 동포재단은 3월 23일부터 24일 양일 간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현안과 향후계획에 대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 2 종합토론에서 김경근이사장은 "직원 모두가 재외동포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 3 워크숍 참가한 동포재단 임직원들은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 추진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며, 재단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차세대, 정체성과 네트워크구축 중점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한인차세대 포럼과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를 더욱 내실화해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기로 하는 한편, 재외동포 장학사업과 직업연수를 통해 차세대 인재육성과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강화하는 사업방향을 설명했다.

재외동포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2단계 사업 완료 현황과 '코리안넷(Korean.net)',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인 '스티디코리안' 과 '한상넷'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재단 대외관계 및 국내 홍보도 강화

또한 재단 본연의 사업 외에도 재외동포 업무의 특성상 폭넓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재외동포', '재외동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정부 부처 및 단체, 국내외 언론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내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역대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속에 기술된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변환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둘째 날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전날 세미나 내용을 포함해 재단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있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직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타부서 사업추진과 발전방향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 제기된 내용이 사업추진 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러한 워크숍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김경근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 총평에서 "재단은 재외동포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보유하고,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직원 모두가 재외동포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독려했다. **창**

한상대회를 비즈니스 '축제의 장' 으로

문대동 제1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 미국 삼문(Sammoon)그룹 회장

필자가 미국에 첫발을 내딛던 40년 전에 지금 같은 한상(韓商) 네트워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을 타깃으로 장사하는 게 안전하다'는 주위의 조언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멀리 보면 더 수익성이 높고 의미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 사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중국의 화상(華商)이나 인도의 인상(印商)들이 체계적으로 교류하고 본국에 투자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었다. 작년 제10차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 '한상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나니 새삼 지난날의 간절했던 마음이 다시금 떠오르고, 후배 한상들은 제대로 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상대회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네트워크'는 단순히 서로 얼굴만 익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로도 이어져야 한다.

2011년 제10차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된 벅스코 1층 로비에는 500개 기업이 설치한 600여 개의 부스가 있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진열하면 세계 각지에서 온 한상들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 파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상 현지에 나갔을 때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 한상들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국내 제품 가운데에는 반응이 좋아 다시 주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것이 바로 국내 기업과 해외 한상이 상생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상대회의 기업전시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각 지자체에서 출품하는 제품들이 단순히 식품위주의 특산물 소개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축제분위기를 살린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느 마을의 장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간혹 목격되어 이른바 국내 외를 잇는 유일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엿보이기도 했다.



문대동

두 번째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서는 자사의 제품이 한상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상대회에 참가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본인들이 제시한 아이템이 한상대회가 끝나고 바로 수입과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참가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주로 Custom Jewelry, Hair Accessory, Scarf, Sports 용품 등 경공업제품이 더 많이 소개되길 희망하며, 전시 참가기업은 주요 구매 그룹이 될 원하는가를 파악하여 한상대회와 한상네트워크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길 바란다.

세 번째는 한상대회에 좀 더 많은 일반 대중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참여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남을 배려하는 매너나 질서, 동반성장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한상대회를 통해 동포들은 외국의 배울 점을 국내에 알리고 한국의 좋은 점은 배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필자가 한상대회를 통해 바라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한상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참석과 개막식 참여 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뒤로 하고 개인일정에만 바쁜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상대회에서는 참가등록만 하고 숙박이 정해지면 총총히 자리를 이석하는 사람들 보다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 품격 높아진 한상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장**

삼문트레이딩은 한국산 액세서리 등을 수입해 미국 내 소매상에 공급하는 작은 무역회사 겸 소매상으로 출발했다. 2천500㎡에 불과하던 가게는 2년 만에 5천㎡로 커졌다. 2001년에는 쇼핑센터도 오픈했다. 현재 삼문그룹(www.sammoon.com)은 텍사스 등 미국 중남부를 중심으로 액세서리 등 여성용품 도·소매, 쇼핑센터, 골프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삼문그룹의 직원은 450여 명이며, 대형 쇼핑센터 8개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제일 서비스로 규제와 싸워 이겼죠”

유태식 MK택시 부회장



세계제일의 친절기업 'MK택시'. MK택시의 서비스는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지난 1995년 미국 타임지는 MK택시를 '서비스 세계제일의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MK택시 신화를 이룬 유태식(75) MK그룹 부회장은 “현재 도쿄, 교토, 오사카, 나고야 등 8개 도시에서 MK택시 2천여대를 운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MK택시 2만5천대, 기사 10만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근현대사 구술(口述) 자료 수집에도 참여해 'MK택시 신화'를 소개하기도 한 유 부회장은 “현재 일본 8개 도시에서 운행 중인 MK택시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택시기사 10만명을 채용하는 문제를 놓고 현재 일본 노동성의 지원을 받고자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1960년 열 대의 택시로 시작해 MK택시를 일본 최대의 택시회사로 이끈 그는 일본 택시 업계에서 '이단아'로 불린다. 남들이 하지 않는 친절서비스와 가격파괴는 타 업체로부터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었다. 일본 정부의 규제도 MK택시의 '돌출행동'에 제약을 가했다. 하지만 유 회장은 일본 택시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혀온 가격담합, 신규참여 제한 등의 규제에 물러서지 않고 싸웠다. 자신의 경영철학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반(反)했기 때문이다.

MK택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깔끔한 제복 차림의 운전사가 고객 승차시 문을 직접 열어주고, 승객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적절한 대화를 나눈다. 청결은 기본. 여러 장르의 음악도 구비해놓는다. 그런데도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싸다.

그는 “택시 10대로 교토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택시기사들이 무단 지각이나 결근을 일삼는 등 근무태도가 엉망이었고, 승차거부나 교통사고도 잦았다”면서 “이런 모든 문제점이 대부분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사원들의 주택 문제를 우선 해결해준 것이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소개했다.

MK는 1972년 전국 교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체장애인 우선 승차를 시행하는 등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운동으로 신뢰를 쌓아 '밤길에 여성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로 알려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유 부회장은 밝혔다.

그는 “MK택시가 일본에서 가장 배타적이라는 옛도시 교토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으로서 받았던 차별, 억울함, 고통이 오히려 밑거름되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영철학을 소개했다.

MK는 1977년부터 대학졸업생을 기사로 채용하기 시작했으며, 요즘은 매년 40여명을 뽑는 대졸자 채용시험에 8천여명이 응시하는 등 구직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고교졸업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60년 친형인 유봉식 MK그룹 회장과 MK택시를 공동창업했다. 이후 기사들의 영어 회화, 전차량 금연, 정중한 말씨, 청결한 세차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성공신화를 일궈낸 인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창**



아들의 용돈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귀가한 아들이 엄마 용돈이라며 50불을 제 손에 불쑥 쥐어줬습니다. 작년에 대학을 마치고 올해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아들은 한국 나이로 쳐도 이제 겨우 스물두 살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벌써 용돈을 받았으니 정말이지 기특하고 뿌듯해서 남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반면, 고생스레 일한 걸 생각하면 마음 한 구석이 아릿아릿 아프고 안쓰러웠습니다.

아들은 실상 대학을 다닐 때부터 용돈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못 할 때는 지금 일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등, 곧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등하며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부모에게 돈을 타 쓰는 일의 떳떳치 못함을 스스로 내비쳤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또래 청년은 물론이고 훨씬 어려서부터 자기가 쓸 돈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한다는 점에 비준다면 특별한 이야깃거리도 아닙니다.

어쩌면 요즘 아들은 주변의 친구들은 멀쩡하게 부모 집에 얹혀살기가 송구해 얼마간의 방값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해 민망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건만 곧 방세를 낼게요, 어찌고 하면서 얼마 전에도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이번 일은 한동안 안정되게 갈 것 같으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의 상이한 문화 속에서 부모 세대와 무단히도 갈등하며 성장한 이민 2세대이지만 그래도 호주 문화에 대견하게 적응한 것 중 하나로 '경제적 독립과 책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18세 무렵부터는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꾸려갑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형성된 이러한 습관은 학비나 결혼 자금, 집장만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고, 하게 되더라도 수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가까운 지인이 최근에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결혼 비용 마련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통에 되레 서운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개혼이라 부모로서 이런저런 계획이 많았는데 당사자들 중심으로 결혼식을 올리다 보니 간소하고 단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재력이 맞선이나 연애의 조건이 되고 무리를 해서라도 사치스럽고 호사스런 결혼식을 올려야 체면이 서는 한국 사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결혼뿐입니까. 시작은 이미 대입시를 향한 사교육부터였으니 자식 뒷바라지로 등골이 휘는 한국 부모들로서는 결혼은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는 지난한 과정의 한 매듭일 것입니다.

이따금 저는 한국의 또래들이 당연히 누리는 '부모 덕'에 대해 이곳 이민2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호주 한인들 중에도 자식에게 무한대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주변의 질투나 시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드러내 놓고 자랑을 하거나 돈으로 거들먹거리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호주의 우리 아이들도 행여 또래의 한국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꾸리는 훈련이 보편화 되어 있는 이 나라 문화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합니다. 지인 중에는 집안 형편이 넉넉함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 적이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제 속된 마음에도 '자식들 밑으로 큰 돈 들 일 없다' 싶을 때 이민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걸 보면 이 나라의 건전한 문화에 잘 적응해 준 우리 2세대들이 참 고맙고 대견합니다. **[창]**

신아연 호주 칼럼니스트



재중국한국인회 '2012년 임원회의 및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재중국한국인회(회장 정효권)는 3월 16일 베이징 트레이더스 호텔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한국 내 사단법인 설립' 등을 논의했다.

재중국한국인회는 지난 3월 16일 중국 북경 트레이더스호텔에서 '재중국한국인회 임원회의 및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정효권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을 비롯해 한정현·조평규 수석부회장, 이훈복·백금식·김희철 고문 등과 지역한인회장 등 114명과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분과별 주요 사업으로는 기획위원회에서 재중국 한국인 20년사(가칭) 편찬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중국 교민안전을 위해 안전위원회에서 안전대책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생분과에서 재중 한인 의사

회 설립을 통해 무료 진료 등을 추진하고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중국 내 한류 스타 공연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분과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회'와 '국제교류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교류협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기존 20개에서 15개로 조정됐으며 '한중수교2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정권촉진위원회', '사단법인인가추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2012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 내 사단법인 설립은 재중국한국인회가 공식적인 재정지원과 기업후원을 위해 지

난해 9월부터 추진 중으로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돼 올해 내에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5인 이상의 이사, 2인 이상의 감사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경근 이사장은 개회 축사를 통해 1999년 재중국한국인회가 창립한 이래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한·중 수교를 기해서 재중국한국인들이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 뿐 아니라 양국의 교류 발전에 중심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中선양총영사관 · 한인회, 교민안전협 발족

중국 선양 한국총영사관과 선양한인회가 공동으로 곤경에 처한 한국인을 돕기 위한 '교민안전협의회'를 발족했다.

3월 10일 선양총영사관에 따르면 이 조직은 선양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한국인이 돌발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 수습하거나 구호활동을 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24시간 접수 체제를 갖춰 어려움에 부딪친 한국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응급조치 등 사건·사고 수습과 구호활동을 벌이고 현지 공간에 신속히 신고,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사고 예방활동과 한인 안전을 위한 치안 상황 모니터링에도 나

서기로 했다.

선양총영사관은 교민안전협의회와 비상 연락망을 가동, 한인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선양총영사관은 선양을 시작으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3성 주요 도시에도 교민안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양총영사관 관계자는 "한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현지 사정에 밝은 이 단체 회원들이 총영사관과 협조,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한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대운 · 박중국 연합뉴스 중국 특파원

고려인 동포들과의 '일상적 교감' 이 필요

김상욱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



카자흐스탄국립 오페라극장에서 개최된 알마티고려문화중앙주최의 설날대잔치 모습

카자흐스탄에서는 매년 5월이면 '평화통일 기원 한민족 축구대회'가 열린다. 올해로 5번째가 되는 이번 행사를 위해 얼마 전, 알마티의 모 한식당에서 한인단체장들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회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아이디어와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고려인'에 대한 내용이었다.

"축구대회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려인들과 함께 하는 한민족 체육대회로 승화시키자"는 말에서부터 "행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자"는 지적, "기존의 한인체육대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체육행사에서 벗어나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초청하는 한류 콘서트 성격의 문화행사로 질적 발전을 이루어보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렇게 한인단체장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그 의견 속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고려인'이었던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10만 5천명의 고려인 동포들과 약 1천500명이 조금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로부터 강제이주를 당한 후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자들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민족을 구성하는 세 개의 부족에 이어 4번째 부족으로 꼽히기 까지 한다. 이러한 사실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민방문 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언급하여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저 멀리 지방까

지 조직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CIS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까레이스키 돔(코리안 하우스)'이라는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협회 사무실뿐만 아니라 고려일보사와 고려청년운동연합, 과학협회, 전통무용강습소 등이 함께 입주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포함한 전체 CIS 지역 고려인협회를 사실상 지도하고 있기 까지 하다.

사할린과 극동을 포함하는 러시아와 가장 많은 고려인들이 사는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카자흐스탄의 고려인협회가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공한 고려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에 작고하신 이 블라지미르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오랜 벗이자 총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동포사회 발전과 한국기업의 현지진출에 숨은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직접 병원과 의사, 수술일정을 섭외해 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그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동포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구 사회주의국가들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정부처의 장관보다 최고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모든 공식 일정과 사생활 그리고 금고지기 노릇까지 하는 자의 힘이 센 법인데 그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제어하는 지혜를 겸비함으로써 카자흐스탄 내에서 고려인의 위상을 높이고 또 동포사



최유리 상원의원



김로만 하원의원 겸 고려인협회장



신 브로니슬라브 알마티고려문화중앙회장



김 블라지미르 카작무스 회장

회의 성장에 큰 디딤돌이 되었다.

최유리 상원의원.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발전에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는 잘 알려진 테로 북서출신으로서 그의 제자 세릭 꾸난바예프를 88 서울 올림픽에 출전시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만든 인물이다. 이후 사업가로 변신하여 카스피 그룹을 일구었고 또 고려인협회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어냈고 결국 상원의원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또한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한국의 기업인들과도 막역한 관계를 유지, 한국기업의 현지진출을 도왔다.

현재의 고려인협회의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기둥과 보까지 올려놓은 인물이 최유리 상원의원이라면 그 위에 지붕을 얹은 이는 김로만 현 회장이다.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최초 정착지 우수토베 출신인 그는 40대에 고향 우수토베를 포함하고 있는 까라말 시장을 역임한 후 2007년 고려인협회장이 되었다. 이후 협회 운영을 조화롭게 한 그는 지난 1월 달에 치러진 카자흐스탄 총선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농업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과 정부의 신임을 단단히 받고 있다.

그 다음은 신 브로니슬라브 알마티고려문화중앙회장이 있다. '알마티엔지스트로이' 사의 회장인 그는 사회진출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막일꾼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회장이 되기까지 오직 한 회사에서 한 길만 걸어온 골수 건설인이다. 그는 현재 알마티시 의원으로서 8년째 봉직하면서 시의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각종 개발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전문가가 없을 정도이다. 또한 신 회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모국어 재생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고려문화중앙 사업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올해부터 고려인협회 수석부회장을 맡아 협회의 살림살이까지 지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고려인들 외에도 '카작무스'의 김 블라지미르 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포지도자들이 경제, 문화,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고려인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지 네트

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가진 네트워크의 가치와 동포들의 역량을 심분 활용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모국어를 상실한 고려인들과 언어소통의 문제가 놓여 있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던가 "고려인들이 한국적 마인드를 가지지 않는 한 그들은 그저 우리와 똑 같이 생긴 러시아인일 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 후자는 "고려인들의 네트워크보다 우리 회사가 구축한 라인이 더 나아!" 라고 말하는 분도 있다.

위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태도가 아직도 동정의 대상이나 2등 국민으로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단기적인 효과나 이익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인'이란 존재의 원천이 인종적인 러시아인에 대한 동질 감보다는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라는 데 근거해 이를 확산을 목적으로 국제적 활동을 증대하는 데 주력하는 러시아의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인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싶다. 이는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 같다.

요컨대, 한-카 수교 2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이 땅 카자흐스탄에 발을 디딘 시기와 이유는 달라도 국적과 경제적 지위를 떠나 우리는 하나의 조상을 가진 형제라는 사실, 재 카자흐스탄 동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과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무슨 일이 있을 때, 또는 누가 잘 되었을 때 찾아가는 것 보다 평소에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만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그들도 저 멀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국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중계는 카자흐스탄에 나와 있는 교민들과 고려인들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넓게는 우리민족의 융성을 선도할 튼튼한 재외동포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



1

사상 최대 외교 이벤트 ‘핵안보 정상회의’

안보분야 국제 영향력 확대... 北로켓 저지연대 구축

핵테러 방지 성공적 합의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교 이벤트’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6~27일 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53개 국가의 정상 또는 정상급 수석대표와 4대 국제기구인 유럽연합(EU)·유엔·국제원자력기구(IAEA)·인터폴의 수장 등 58명이 참석했다. 정상회의의 참가 53개국을 전 세계 인구의 80%, 전세계 GDP의 약 90%를 대표하고 있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는 명실 공히 세계 최고위 안보 포럼으로 평가받았다.

핵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 6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회의에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전세계 주요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 아욕도 견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일정 기간인 지난 26~27일 의장으로 서 핵 물질 감축을 위한 합의에 주력했고, 앞서 24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양자회담 일정을 통해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무력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안보 분야서도 강국 진입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을 한 차원 높였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각국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합의가 어려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2



3

- 1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 2 이명박 대통령이 3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 장 기자회견에서 '서울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있다.
- 3 '2012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3월 25일 방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을 방문해 오피오울렛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처럼 G20정상회의에 이어 안보 분야의 프리미엄 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한국은 안보 분야에서도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反로켓' 글로벌 공조, 北고립 가속화

핵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저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 구축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24~28일 진행된 연쇄 회담에서 무려 22개 국가·국제기구의 정상급 인사 23명을 직접 만나 대북 포위 전선의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냈다.

29일 예정된 조지아, 헝가리 등 두 나라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양자 회담 상대 중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3강과 각 대륙 및 문화권을 대표하는 주요 국가들이 사실상 모두 포함돼 북한을 고립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6자 회담 참여국이면서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중·러시아와 서방 세계의 거대 축인 유럽연합(EU)이 장거리 로켓 발사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점은 북한 지도부와 군부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식량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북한 지도부를 비판한 대목은 의미가 크다.

북한으로선 혈맹인 중국과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맹주'였던 러시아가 한목소리로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헤르만 반롬피이 EU 상임의장도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발사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들 역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고무적이다. **장**

울 것으로 봤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 등을 막판까지 잘 조율해 세계 경제 질서의 큰 물줄기를 '균형 성장'으로 돌려놓는 성과를 낳았고, 이에 각국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핵안보회의에서도 무려 58명에 달하는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이끌면서 2년 전 워싱턴에서 시작된 핵 감축 프로세스를 실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서울 코뮤니케(정상선언문)'를 순조롭게 견인했다.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워싱턴 코뮤니케의 핵 감축 합의가 비로소 서울 코뮤니케를 통해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말까지 각국이 고농축우라늄(HLEU)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한 합의와 2014년까지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을 발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대목은 이른바 '핵테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행동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 벨기에, 프랑스 등 3개국과 공동으로 HLEU 연료를 저농축우라늄 (LEU) 연료로 전환하는 협력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은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대목이라고 한다.

2012 유럽한글학교 교사세미나 “우리말 가르치는 자부심 키요”

재단 교육사업팀의 흥진항 과장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고 유럽한글학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8회 유럽한글학교 교사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아이레 그랑 호텔 콜론에서 개최됐으며 유럽 내 한글학교 교장, 교사, 강사, 교육원장(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글학교 교사연수프로그램은 현지에서 보다 전문적인 한글교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각 대륙별, 국가별, 학교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교사세미나의 주요내용은 한국어 교수법과 평가방법, 대중문화와 문화적 주제라는 주제 등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한류와 더불어 한글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는 점을 감안 한글학교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제8회 유럽한글학교 교사세미나가 3월 23일부터 2박3일간 스페인 마드리드 아이레 그랑 호텔 콜론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제20-21기 재중동포 IT직업연수 시행

재외동포재단은 3월 26일부터 7월 13일, 8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각 16주간 두차례에 걸쳐 재중동포청년IT직업연수를 시행한다.

재외동포IT직업연수는 동포들의 직업능력 제고를 통해 거주국내 안정적인 취업기반 마련 및 재외동포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내외동포간의 산업인력 인적 네트워크 구축,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재외동포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위탁하여 시행할 이번 연수에는 만 26세 이하의 재중동포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춘 동포청년으로 한국어가 가능하면 누구나 참가할수 있다. 참가 가능인원은 상하반기 각각 45명씩 총 90명이다.

연변과기대는 16주간의 연수를 통해 IT기술교육, 비즈니스영어, 무역실무, 직업인성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엔지(延吉),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지역의 중국 기업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부분 취업한다고 밝혔다.

연수내용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과 웹디자인으로 특히 이번 연수부터는 전문기능 강화를 위해 전공과목을 확대하고, 연수생 DB확보를 위해 실무활동과 기수별, 졸업생들에 대한 모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웹사이트인 코리아넷을 참조하면 된다.

김경근이사장, 재외총영사회의 참석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12년도 총영사회의에 참석한 영사들에게 내 가족처럼 재외동포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신경써 주기를 당부했다.

2012년도 총영사회의가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총영사, 분관장 및 출장소장 등 총 56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이뤄졌다.

회의 이틀째 날인 13일,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김경근 이사장은 올해 사업추진전략으로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확대,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 발굴 및 육성, 재외동포 민족문화 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 초청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이사장은 각 국가별 영사업무 담당자들 모두가 재외동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 내 가족처럼 재외동포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 신경 써 주기를 당부했다.

재일민단 신임지도부 동포재단 방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신임지도부가 3월 27일 재단을 방문해 김경근 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공태 신임 단장은 “민단의 새로운 지도부는 재일동포사회 내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재단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근 이사장은 “재일동포사회의 중심인 민단이 앞으로도 집행부를 중심으로 잘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아울러 “민단이 뉴커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한국어 보급과 차세대 육성에도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단 측에서는 오공태 단장, 정진 전 단장, 한재은 감찰위원장, 허맹도 부단장, 박상홍 생활국장, 고한석 민단본국사무소장이 참석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신임 지도부가 3월 27일 재단을 방문해 김경근 재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직원 4명 해외 단기 직무연수 시작

재단은 3월 29일부터 직원의 동포사회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해외 단기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올해 시범적으로 미국 뉴욕지역에 3월과 9월, 일본 동경지역에 6월과 11월,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각 1명씩 연간 4명의 직원이 1개월 간 연수를 받게 된다.

한편, 동 연수의 시행과정에는 해당지역 한인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첫 직무연수자는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뉴욕한인회에서 한인회 운영현황을 관찰하고 뉴욕지역 동포사회의 행사를 참관하면서 동포사회의 현안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직무연수는 직원들에게 동포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재단사업 추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홍보와 현황파악 차 유럽 3개국을 방문한 김종완 동포재단 사업이사는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한인회장, 한글학교 교장, 언론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유럽에 코리안네트워크 홍보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유럽지역 재외동포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재단에서 추진 중인 중국과제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홍보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현지 정보화 현황을 파악 차 3월 25일부터 6박 8일간 파리를 비롯한 유럽 3개 지역을 돌아보았다.

주요 일정으로는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한인회장, 한글학교 교장, 언론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로마한글학교 관계자는 “유럽 내 차세대들의 정체성 교육은 물론, 요즘 유럽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계기로 현지인 대상의 활동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며 재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완 사업이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국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단도 지원체계의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단체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종완 이사는 파리, 프랑크푸르트 지역 동포단체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재단이 재외동포 자녀의 한글교육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한글교육 사이트 ‘스튜디오 코리안(<http://study.korean.net>)’ 등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

기억

김현지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최우수상(중국)



중학생이 되자 거울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사자 머리를 쪽 쪽 꺾더니 한결 예뻐졌다. 하얗고 고르게 난 치아를 드러내고 웃으면 미스코리아 감이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뺨에 있는 흉터가 거슬린다. 이 흉터와 함께 잠시 나는 하얼빈에서의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하얼빈은 얼어붙은 쌍화 강 위에 얼음 조각전이 열리는 아주 추운 곳이다. 그런데 내게는 뜨거웠던 기억이 먼저 난다.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 현장이 생생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었을 때, 나는 정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활동하기 좋아하고 끝없이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철없는 어린아이였다. 이웃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저녁 때 식당에서 가졌다. 어른들은 음식을 들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모두 놀려고 들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같이 식당에서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밥을 다 먹었을 때 어른들은 아직도 음식을 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려고 나갔다. 나도 놀고 싶어서 뛰

TV 개그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의 '두분토론'은 남하당(남자는 하늘이다 당) 대표와 '여당당(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대표가 한 주제를 놓고 남녀의 다른 입장 차를 대변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어 나갔다. 그 순간, 주방에서 갓 끓여져 나온 국 냄비를 들고 오는 종업원과 부딪치고 말았다. 뜨거운 국물이 내 얼굴에 쏟아져 내렸다. 거기서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엄마께서는 나를 얼른 일으켜 안아, 식당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다. 택시 안에서 나는 엉엉 울고 있었다. 양 옆에 앉으신 아저씨와 아줌마가 내 얼굴에다가 생수를 마구 붓고 계셨다. 나는 내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내려온 그 느낌이 정말 잊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히얼빈에서 유명한 화상병원에 도착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화상연고를 발랐다. 주사도 맞았다. 그 후로도 내 얼굴은 조금씩 부어 오르고 짓물러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엾게 되었다. 한번은 의사가 내 얼굴에 가위를 대고, 잘못 떨어져 나온 내 피부를 마취도 하지 않고 잘라냈다. 석고 반죽 같은 화상연고를 더욱 두텁게 발랐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던 부모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나는 그때의 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를 한 번씩 더 쳐다보았다. 한 아줌마가 나에게 와서는 뭐 먹고 싶은 게 없느냐고 하시면서 초콜릿을 주셨다. 마음은 정말 고마웠지만 얼굴이 너무 부어오르고 당겨 초콜릿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밤에 아빠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자지 못하게 베개를 여러 개 들고 오셔서 내 고개를 고정시켜 주셨다. 하룻밤이 정말 느리게 지나갔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아 너무 힘들었다.

부모님의 극진한 간호로 얼굴은 잘 회복이 되어 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2년은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한다고 하셨다. 상처가 나은 후에도 햇빛을 받으면 상처 부위가 검어질 수 있다고 하셨다. 그 때 엄마 눈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은 어린 내 마음을 흠뻑 적셨다. 나도 모르게 나도 울고 있었다.

내 초등학교생활은 어둡고 슬프게 시작되었다. 교실 안이든 밖이든 모자를 꼭 쓰고 있어야 했다. 챙이 유난히 큰 모자가 항상 내 신체의 일부처럼 내 머리 위에 붙어 있어야 했다. 너무 힘들었다. 체육 시간에 애들은 운동장으로 나가 놀았지만 난 밖은커녕 교실 안에 혼자

있어야 했다. 답답했다.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고 혼자서 그 쓸쓸함과 고단함을 느끼고 있어야 했다. 점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가 되었다.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시간이 제일 싫었다. 시간이 흐르며 얼굴은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었고 모자도 벗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모자를 쓰고 있었다.

부모님께서 '현지야, 너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야! 밝고 당당하게 자라다오.' 하고 말씀하셨다.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을 화상 당하여 수십 번을 수술하고도 밝게 살아가는 이지선 언니의 이야기도 들려 주셨다. 아침 등교할 때마다 하시는 인사는 "오늘도 당당하고 씩씩하게!"였다. 나는 마음의 모자를 벗고 싶었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 중국어 예술제가 열렸다. 친구들과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두분 토론'을 중국어로 패러디 한 연극을 하게 되었다. 중국어를 잘 하는 내게 일단 '여당당' 역이 맡겨졌다. 그런데 주위의 친구들이 "현지야, 너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무래도 배역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라고 했다. 나도 좀 고민이 되었다. 집에 오니 엄마께서 아시고는 "현지야,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기로 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나의 새로운 면을 보여 주고 싶었다. 대사부터 완벽하게 외웠다. 인터넷으로 개그콘서트 '두분토론'을 보면서 흉내 내 보았다.

드디어 중국어 예술제다. 우리 팀이 할 차례다. 중고등부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있는 무대 앞에 섰다. 가슴이 막 떨렸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러나 '현지야, 너는 할 수 있어. 파이팅!' 엄마가 아침 등굣길에 하신 말씀을 떠올렸다. 용기를 내서 첫 대사를 꺼냈다. "뉘런 탕탕, 구어지아 푸치양! 女入堂堂, 國家富强!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그 순간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졌다. 내가 한 마디 한 마디 연기할 때마다 더욱 열띤 호응과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다. 세상이 나를 지지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세상이 내편인 것 같이 느껴졌다. 우리 팀이 1등을 했다. 학교 신문에도 실렸다.

그 일 후로 내 마음에는 더 큰 기억, 유쾌한 기억이 생겼다. 그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웃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싱그럽게 웃는다. 나는 당당하다. **장**

모국 찾는 차세대 동포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

재외동포재단 1기 대학생 자원봉사단(OKF)



OKF 봉사단은 2012년도 주요 활동을 논의하고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1월 15일 세계한인 청소년들과 함께할 국내 대학생들을 모집해 2011 OKF(Overseas Korean's Friends, 이하 OKF) 1기 자원봉사단 발족했다.

동포재단 교육문화팀 관계자는 "1기로 선발된 33명의 자원봉사단은 모국 연수 및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비롯해 모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등을 돕고 있다"며 "여름에 개최하는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에서 그룹 리더로 활약하며 연수를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국제 교류 분야, 대학 캠퍼스 활동, e-OKF 활동 등 3가지 분야에서 활약할 전망이다. 국제 교류 분야는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참여를 비롯해 재단이 주최하는 각종 동포 초청행사에서 통역 관련 봉사도 하게 된다.

대학 캠퍼스 활동은 구체적으로 모국 유학을 오는 동포 장학생의 공항 마중을 시작으로, 멘토 및 수강신청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 등을 돕게 된다.

e-OKF 활동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각종 행사 활동의 사진이나 글 또는 동영상 알리는 소셜네트워크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재단은 그동안 워크숍을 통해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안내하고 팀워크를 불어 넣었다. 1기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지영(동아대) 단원은 "동포재단 장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며 "막연히 재미 동포, 조선족, 북한 등을 동포로 생각했는데 OKF 활동을 통해 유럽, 남미, CIS 등 전 세계 곳곳에 동포들이 있으며 우리와 다른 것 없는 한민족이라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OKF봉사단 리더

조 엘레나(봉사단장, 연세대대학원)

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유학하면서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에 도우미 활동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동포 유학생과 같은 처지라 멘토 역할도 어렵지 않다. 이전에는 단순히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고려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유학 생활을 하면서 또 동포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이 생겼다.

김진우(홍보 담당, 고려대학원)

OKF 1기로서의 사명감을 느낀다. 기본적인 모임의 틀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몰랐던 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봉사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단 자체 교류도 활발히 할 생각이다. 봉사로 동포들을 만나면서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점은 부럽지만 현지에서는 동포들이 소수자로 차별 받는 것을 알았다. 내 자신과 한국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세민(프로젝트 담당, 성공회대학원)

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봉사활동이 가장 기대된다. 봉사활동 하면서 재외 동포들을 만났다. 이전에는 동포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동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친척 중에도 있는 가까운 이웃이란 생각이 든다. 1년 후에도 시니어로 계속 봉사단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재 동포재단 차세대팀 대리 강세민, 조엘레나, 김진우 OKF 봉사단 리더들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애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틀리다 / 다르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리더라.”

“미국하고 우리는 틀리잖아.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는 거 아냐?”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잘못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틀리다’와 ‘다르다’ 일 것이다.

그런데 ‘틀리다’와 ‘다르다’는 엄연히 뜻이 다르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이고,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이다.

따라서 ‘틀리다’는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같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대화에서는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르고, 또한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 어느 나라가 옳고 어느 나라가 그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틀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더라.”,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잖아”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손 없는 날

봄, 가을에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결혼하는 사람과 이사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손 없는 날 택일했다’는 얘기를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 ‘손’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여기서 ‘손’은 날수를 따라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귀신을 뜻하는 우리 고유의 말이다.

그래서 ‘손 없는 날에 결혼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는 것은 방해하는 귀신이 없는 날을 택해서 결혼이나 이사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손’이라는 우리 고유의 표현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을 높여서 ‘손님’이라고 부르는데, ‘손님’이라는 말은 ‘손님 마마’라는 말의 준말 형태이기도 하다. ‘손님 마마’는 ‘천연두’를 그렇게 부른 것으로, 이 ‘마마’라는 말은 한자어(?)에서 온 말로 왕족들에게 두루 쓰였던 것이다.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른 것은, 무서운 천연두를 ‘마마’라고 높여 부름으로써 병을 옮기는 귀신을 달래고 그 해악에서 벗어나고자 한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소꿉장난 / 깡충깡충

어렸을 때는 누구나 살림살이 흉내를 내는 장난을 해 보기도 하고, ‘나는 엄마, 너는 아빠’ 하면서 놀곤 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소꿉장난’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꿉장난’이라고 할까?

많은 이들이 ‘소꿉장난’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표현이고 ‘소꿉장난’이 올바른 표현이다. ‘소꿉’이라는 말은 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 쓰는 장난감을 총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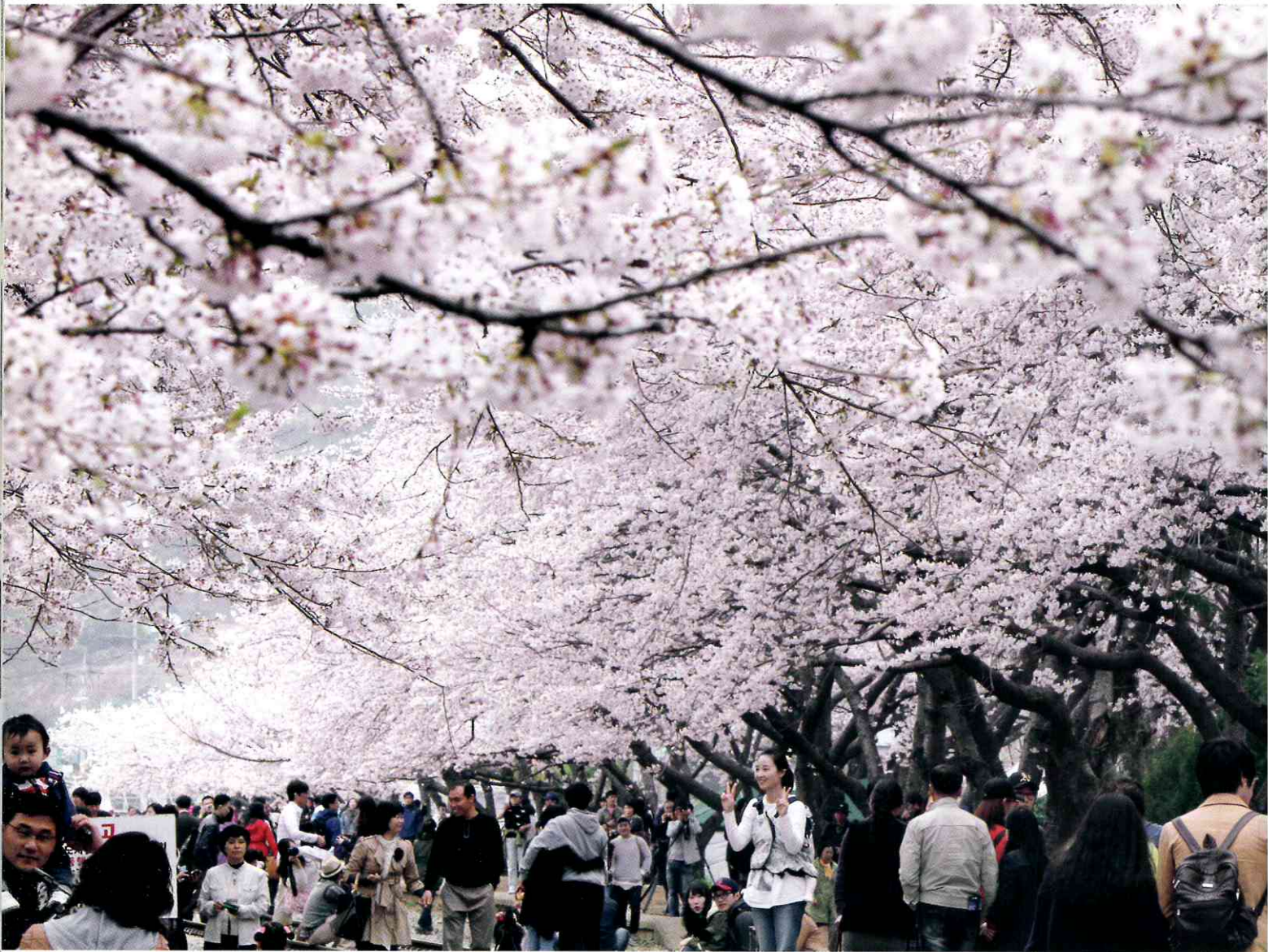
‘소꿉장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음조화, 즉 양성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린다는 규칙 때문에 ‘소꿉장난’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모음조화의 예외적인 경우로 ‘소꿉장난’이 맞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산토끼’라는 동요에 나오는 ‘깡충깡충’이란 가사의 경우도 역시 ‘깡충깡충’이 맞다.

또한 의중계 지내거나 이야기 할 때, 흔히 ‘오순도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때도 역시 ‘오순도순’이 맞다.

‘소꿉장난, 깡충깡충, 오순도순’은 모두 모음조화의 예외적인 경우다. **장**





진해 근항제 **꽃비에 가슴까지 젖는다**

봄이 오면 그곳엔 눈이 내린다. 다섯 꽃잎의 눈송이가 성긴 햇살을 가르며 흩날린다. 꽃눈은 거리와 철길을 순백으로 물들이고, 실개천과 바다 위에 꽃잎 종이배를 띄운다. 겨우내 검은 등걸 속에서 잉태된 꽃망울이 세상 밖으로 해방을 선언하는 날. 진해에는 꽃잎의 물결이 일렁인다.





한 반도의 봄은 남쪽 바다에서 시작된다. 남해안으로 올라온 봄기운은 동백나무에 붉은 꽃망울을 틔운 후 산수유 가지를 노랗게 물들인다. 이후 맹렬한 기세로 타올라 봄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에 벚꽃을 개화시킨다. 진해의 벚꽃은 남해의 봄기운이 극적으로 발현되는 시점에 만개한다.

진해의 왕벚나무는 일제가 군항을 건설하면서 도시 미관용으로 심었다. 하지만 해방 후 진해 시민들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벚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자취를 감춘 벚나무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다. 왕벚나무 원산지인 제주도로 밝혀지면서 세계 제1의 벚꽃도시로 가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진해 곳곳에 다시 왕벚나무가 식재돼 현재 수십 만 그루에 이른다. 왕벚나무는 벚나무 중 으뜸인 수종으로 다른 종보다 꽃이 탐스럽고 그 양이 많다.

군항제는 왕벚나무의 화양연화(花樣年華)에 맞춰 열린다. 화양연화는 '생애의 꽃이 피는 날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말한다. 응축된 생명력으로 꽃의 빛깔과 향기가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군항제의 개막일은 매년 다르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제전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항제 주관처인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는 매년 심혈을 쏟아 붓는다. 기상청과 농촌진흥청의 기상예보와 개화기 발표에 온 촉각을 기울인다. 지난해에도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보다 늦어져 벚꽃 없이 개막식이 치러졌다.

올해 군항제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하지만 진해 벚꽃을 제대로 향유하고 싶다면 군항제 기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진해에서 벚꽃 명소를 찾는 일은 어쩌면 무의미하다. 안민고개, 제항산공원, 여좌천, 장복산, 해군사관학교, 경화역처럼 이름난 곳이 아니더라도 어디나 일품의 풍경을 선사한다. 길이나 있는 곳은 거개가 새하얀 벚꽃터널을 이룬다. 진해시와 해군은 해마다 더 멋진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령의 벚나무를 정비한다. 벚나무 상태를 진단해 자연 고사한 것을 캐내고 그 자리에 다시 수령 15년 안팎의 벚나무를 심는다.

진해는 경남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시(市)다. 그나마 절반 정도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군사시설 보호에 따른 관련 법령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적이다. 반면 은화한 해양기후와 100km가 넘는 해안선, 청정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은 진해의 강점으로 꼽힌다.

진해를 찾아가면 겨우내 움츠리고 메말랐던 마음이 회복됨을 느낄 수 있다. 벚꽃 만개한 거리에 서면 누구나 알게 된다. 봄은 참 좋은 계절임을. **창**



- 1 전국 최대의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린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이 온통 벚꽃세상으로 변하자 상춘객들이 벚꽃에 흠뻑 빠져 있다.
- 2 경남 진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축제인 군항제가 열리는 항구도시다. 사진은 진해해양공원 주변 바닷가의 풍경.
- 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터리 일대에서 열린 '2012 진해세계군약의장 페스티벌'에서 해군 의장대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 4 진해는 매년 봄이면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 수십만 그루가 도심 곳곳에서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린다. 사진은 진해 시내와 해양공원을 잇는 음지교의 모습.
- 5 해양 테마파크인 경남 진해 해양공원에 세계 각국의 멋진 배들을 모형으로 제작한 전시실이 문을 열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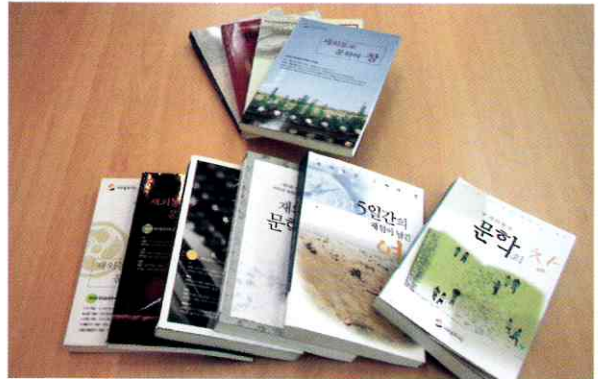
재외동포문학상 및 국내 청소년 대상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제14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2개월 간 실시하는 이번 공모에는 ▲성인부문 시, 단편소설, 수필 ▲청소년(초·중·고등학생)부문 글짓기,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하게 된다. 응모작품 중 부문 별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0편의 작품과 한글학교 2개교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한다.

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본 공모를 '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내국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를 주제로 한 글짓기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

국내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대상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는 재외동포 관련 지정도서 독후감 및 자유주제 글짓기, 2개 분야를 공모한다. 응모된 작품은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분



아별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편의 작품을 선정해 장학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재외동포 문학상'과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는 동일 일정으로 시행되며 응모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고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는 6월 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독자후기

정재상 (뉴질랜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지 15년이 지났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세대를 달리해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번호의 동포문학에 소개된 작품이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주었습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통해 더 많은 동포 소식을 접하길 기대해 봅니다.

박지일 (일본)

'나의 살던 고향'에 내 고향 '여수'가 소개되어 잠시 향수에 젖었습니다. 우연히 '재외동포의 창'을 접하고 재외동포재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재단 장학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주변에서 한국 유학을 고민하고 있는 재외동포 사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유학을 망설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독자 후기를 받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면을 꾸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읽으신 후 내용 등에 대한 감상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독 요청

이나 주소 변경 요청 등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천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pr@okf.or.kr(매월 20일까지)

가을의 꿈같은 바다 이야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 어린이 19,000원
- 평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 어린이 13,000원
- *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입장권 구매처 참조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Official Global Partners



Official Partners



Official Spon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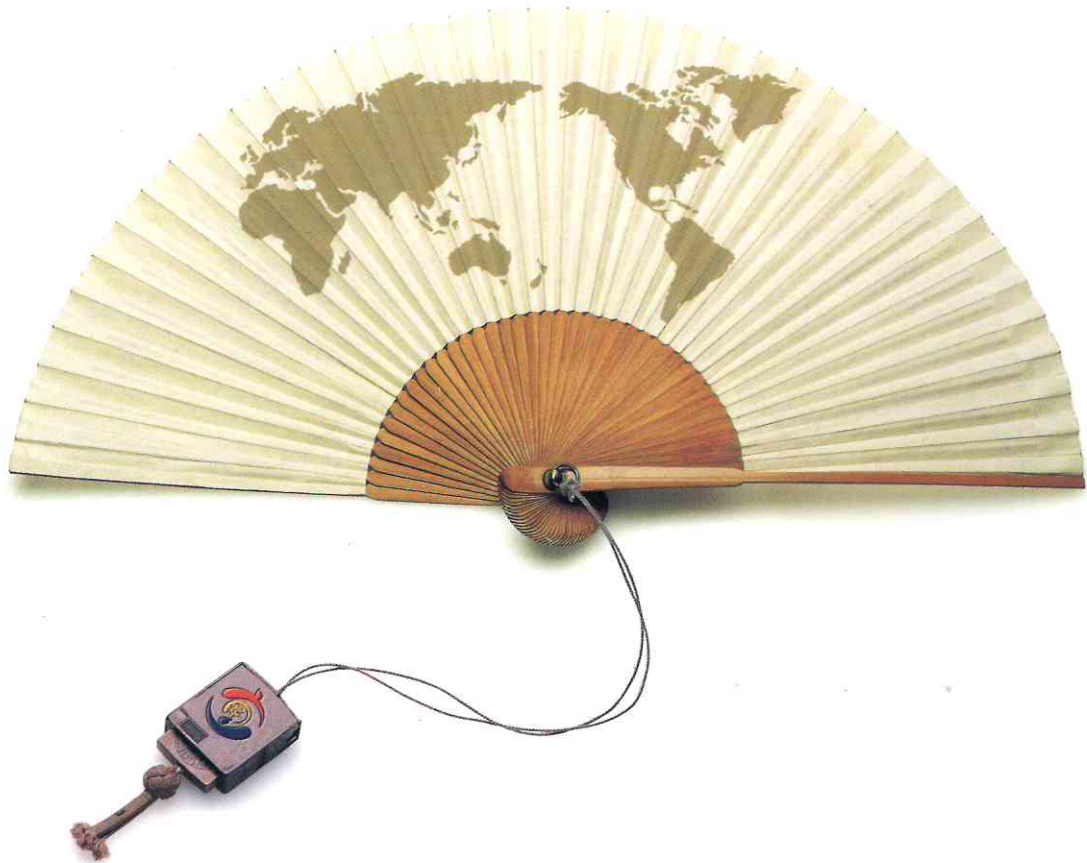


Official Suppliers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날로 늘어나는 재외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